

광주 ‘출산·보육·일자리·혁신’ 인정받았다

주요정책 전국 단위 평가서 잇따라 성과 민선7기 155개 수상 54억 인센티브 확보

광주시가 일자리, 미래 먹거리, 출산·보육 등 역점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인 정책들이 최근 전국 단위 각종 평가에서 연이어 수상하며 그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7기 3년 동안 중앙부처 주관 각종 평가에서 총 155개

의 수상을 했으며, 54억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확보했다. (사)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와한국거버넌스학회가 공동주관한 2021년 상반기 우수 행정 및 정책사례 대회에서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편한 광주 만들기’

가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지난 3년간 초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보육 분야의 선도적인 정책들을 펼쳐왔다. 지난 1월부터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6개월 연속 출생아 수가 증가하는 도시가 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1 대한민국 실패극복사례 공모대전에서 17년 만에 지역사회 합의를 이뤄낸 도시철도 2호선 건설'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지난한 찬반 논쟁을 가장 공정하고 투명하게 소수의견

까지 충분히 담아낸 시민주도 속의형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해 낸 성공 모델로, 그 혁신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8년 제7회 한국정책대상을 수상했다. 민선7기 시정가치인 일자리창출 분야에 수상도 이어지고 있다. 고용노동부 주관 2021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데 이어, (사)한국정책학회 주관 제10회 정책대상에서 광역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정책상을 수상했다.

시는 민선7기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계에서 유례없는 지자체 주도 사회통합 노사상생 일자리 모델 ‘광주형일자리’ 사업을 성사시켜 23년 만에 국내 완성차 공장을 건설하고, 이날부터 첫 성과물인 경형 SUV 캐스퍼가 본격 양산하고 있다. 인공지능 중심도시 기반조성 추진 등 미래먹거리 사업도 중점 추진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았다. 고용노동부 주관 일자리 대상에서 2018년 종합대상(대통령상)에 이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4년 연속 수상을 이뤄냈다. 광주시정을 뒷받침하는 공공기관도 끊임없이 혁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행정안전부 주관 2021 전국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광주도시철도공사는 272개 지방공기업 가운데 전국 1위, 도시공사도 2년 연속 최우수 '기' 등급을 받았다. 문영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광주시의 연이은 수상은 전 공직자들이 시민과 기업, 고객을 위해 헌신을 다해 노력한 결과이자 성과다”며 “앞으로도 더욱 더 광주가 다양한 방면에서 대한민국 최고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공직자 모두가 더 투명하고 청렴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수여 김영록 전남지사가 15일 도청 접견실에서 대학 졸업학년도 학생들의 취업준비·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힘내라! 희망전남 장학금’ 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도, 영세자영업·취약계층 민생 긴급 지원

추석 코로나 지원대책 발표...예산 204억 투입

김영록 전남지사는 15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영세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등을 위한 코로나19 긴급 민생지원대책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브리핑에서 “이번 자체 긴급 민생지원금이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경영 위기를 겪는 분들과 특별히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한가위를 맞아 작으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추석 연휴 타 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타 지역에서 방문한 가족, 친지, 지인과의 만남

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다. 전남도는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예산 20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거나 피해가 심각한 분야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영세 자영업자 경영회복 지원, 농·축·수산물 등 소비 촉진, 취약계층 생계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상생을 위한 긴급 돌봄 등이다. 급격한 매출 감소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승객 감소 등 경영난에 처

한 시외버스 5개 사, 농어촌버스 45개 사에 총 60억 원을, 장기간 국내의 여행 제한으로 폐업 위기에 처한 도내 여행업체 560개소에 200만 원씩 총 11억 2,000만 원을 지원한다. 거리두기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민간 체육시설과 공연업체, 피로연 식당,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업시간이 제한된 노래연습장 등 총 4,236개 사업장에 100만 원씩 총 42억 4,000만 원을 투입한다. 경기침체에 취약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과 자영업자에도 사회보험료 비용을 지원한다. /김용현 기자

광양만권 경자구역, 혁신 생태계 조성

산업부, 세풍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정부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내 2차전지 중심의 소재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추진한다. 정부는 제125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세풍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등 3건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위원회는 광양만권 세풍산업단지 어수국가산단에서 울촌1산단으로 이어지는 화학소재산업과 연계해 2차전지 등 기능성 소재산업 혁신생태계로 발전할 수 있게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2차전지 양극재 생산 앵커기업이 입주한 울촌1산단은 분양이 완료, 향후 입주 수요가 인근 세풍산단으로 이동할 것으로 관측된다. 2차전지 관련 중점·

중소기업 유지를 위해 중점유치산업으로 전기장비제조업종을 추가했다. 또한 입주 중인 융복합소재지원센터(KTR)의 기능을 확대해 혁신 소재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핵심기술개발(R&D), 시험분석, 특허출원·등록 및 인증획득 등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입주기업 편의를 제고해 세풍산단이 조기 활성화될 수 있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세풍산단은 광양만권이 기존 범용 화학소재 중심지에서 고부가가치 2차전지·기능성 화학소재의 핵심권역으로 전환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광양만권 선월하이파크단지에 대해서는 울촌산단, 세풍산단 등 개발·입주에 따른 새로운 정주수요를 반영해 호

과적인 주거 배후단지 조성이 이뤄지도록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두우레저단지에 대해서는 체류형 복합관광·레저파크, 테마빌리지 조성 과 하동지구 개발에 따른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개발계획 변경을 승인했다. 두우레저단지는 2024년까지 관광·상업기능 연계·집적도를 높여 하동 관광지와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공동주택·예술인촌 신설 등 대송·갈사산단 배후 주거기능을 구현해 나갈 예정이다. 안성일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에는 7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연 매출 약 8조 원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이번 개발계획 변경으로 글로벌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2차전지 산업의 주요 생산기지로 부상해 지역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이 시장, 지역 소상공인 애로사항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사진)은 15일 금남지하도상가와 대인시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부터 실시하고 있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특별주간’ 행사의 하나로 추진됐다. 이 시장은 금남지하도상가를 찾아 30년 이상 운영되고 있는 점포들을 둘러보고, 이어 충금·금남지하도상가 상인대표와 동구시장, 상가활성화 사업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하도상가 재도약의 기반을 마련할 중장기형 르네상스사업과 문화관광형 육성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논의하고 지하도상가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상인대표들은 ▲지하도상가 점포 임대료 감면 ▲민 점포를 활용한 고객 문화체험공간 제공 ▲사회적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지하도상가 시설 개선 및 특성화사업 공모 선정 등을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하도상가 상인 간담회 후 대인 시장으로 이동해 공영주차장 증공식에 참석해 상인들과 만났다. 또 온누리상품권으로 명절 장을 보며 상인들과 추석인사를 나눴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기철 기자

전라남도 공고 제2021-911호

남양천 지방하천 하천구역 결정(안), 전라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의견청취에 따른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하천법」 제10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결정,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15조 규정에 따라 전라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16일
전라남도지사

1. 계획의 개요

- 계 획 명 : 하천기본계획 수립(남양천 지방하천)
- 계획하천 위치, 연장 및 주민설명회 장소

하천명	위 치	연장 (km)	주 민 설 명 회
	날 짜	시 간	장 소
남양천	영광군 군남면 2.23	2021. 09. 24. (금)	14:00 남창2리 마을회관

* 발발 등 코로나19의 심증상자 참석 불가, 주민설명회 참석 시 마스크 착용 필수

2. 공람기간 및 장소

구 분	공람기간 및 장소
공 랑 기 간	2021년 09월 16일 ~ 2021년 10월 18일(20일) (공휴일 및 토요일 공람기간 제외)
공 랑 장 소	전남도청 자연재난과, 영광군 안전관리과 * 관련서류 공람장소에 비치
정보통신망	전남도청 홈페이지, 영광군 홈페이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

3. 주민의견 제출

- 제출내용 : 전라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및 하천구역(안)에 관한 의견
- 제출방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양식에 따라 공람장소에 서면 제출
- 제출기간 : 공람개시 후 ~ 공람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자연재난과(☎061-286-3081) 또는 영광군 안전관리과(☎061-350-5492) 공람장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매 광고 안내

전남매일 광고는 전화 및 팩스로 받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게재해 드리겠습니다.

구인·구직·모집·매매·부동산·공고·영업·분양·모임

- 광고료 062) 720-1016, 1017
- 팩 스 062) 720-1020
- 이메일 jnm11000@hanmail.net

자치시대를 선도하는 통합시대거인

월간 전남매일

지방자치 시대 동반자
분권시대 선도자

투고를 기다립니다
E-mail : jnreviews@daum.net

구독문의 062) 720-1006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니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입·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정차적 편의 법정부자 준수 시간적 효율

지사오피스 상담

호남지사 062-417-4717 / 010-4675-6324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NAVER 드림꽃도매

드림꽃도매

365일 연중무휴 가격변동 없음

축화환 3만
근조화환 3만

정품 화환 75,000원 재사용 화환 50,000원

Tel, 062) 233-9961 Fax, 672-9961 동흥 박배성 302-0316-649511